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사랑분별 놓아야 진정한 자기 만나

초파일에 연등 밝히는 까닭

문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4월 초파일에 연등을 밝히는 까닭을 알고 싶어서 대행 큰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문제들이 많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구르면서 수레와 같이 굴러온 이 인생살이를 말하야.

그렇게 거듭 거듭 태어나면서, 거듭 거듭 오르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해매고 돌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거야.

그래서 한마음으로서 '가정과 사회와, 일체 모든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한 등을 켜는' 생각으로 마음의 불을 켜는 의미에서 연등을 밝히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켜는, 바로 그 등불이 불축(奉祝)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일체(一切)와 직결된 나의 마음에 불을 밝힘으로써 위로는 조상님과 아라로는 일체 자손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말하야.

그래서 연등을 켜는 자체가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 내가 한생각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불이 밝아서 사방을 환히 밝히는 것이지 보이는 등불만 환하게 켜다고 해서 그게 불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등을 켜는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방편의 의식인 것이야. 그러나 수억 겁을 이끌어 오면서 공부시키고, 진화시켜 온 나의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불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허투루 한다면 그게 공덕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것도 하찮게 볼 게 없다는 거지. 일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불을 밝힐 수 있게 이끌어 주는 방편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이 알기를 바래요.

너무 내말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뜻은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어. 그러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초파일에 마음의 등을 켜기 바래.

이익주고 은혜 갚을 수 있는 길

문 큰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공부를 하면서 이웃

과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고 스승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답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과 모두를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무조건 다 맡겨놓고 나부터 찾아야.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전부 맡겨 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듯이, 무엇을 하든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다보면 저절로 은혜도 갖게 되고 또 모두를 이익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꿈-가상공간-현실의 차이점

문 스님, 저는 서울 종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온통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상이 현실과 너무 흡사하여 마치 그것이 현실인 줄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가상공간 속의 수많은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가상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공간도 동일한 마음작용으로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꿈과 가상공간, 그리고 현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가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마음 이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꿈이다, 현실이다, 가상공간이다 라는 말이 불을 사이가 없이 공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자동적인 컴퓨터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지든 내 마음대로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無無亦無'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없고 없고 또 없다고 하는 뜻은, 뒷발자국도 없고 앞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어느 것 할 때 내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나할 나 바뀌어가는 것인데 지시간 발자국이 좋고 감사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되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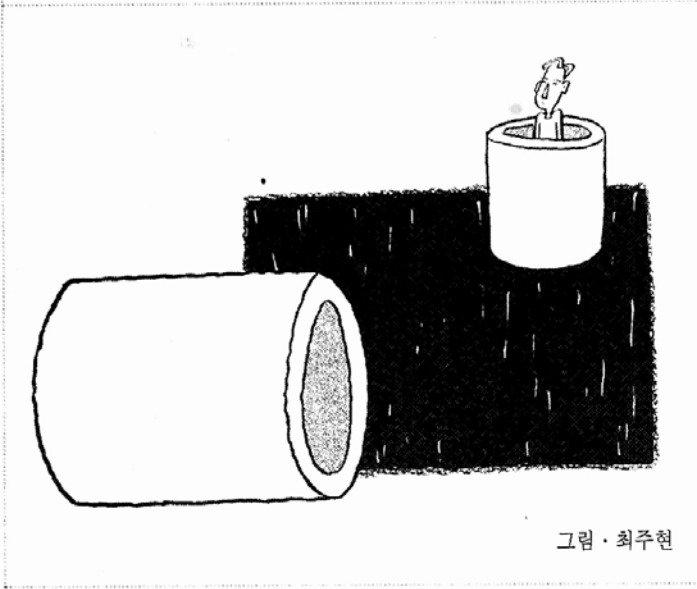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나부터 알아야 이웃에 이익 줄 수 있어

일체의 사는 도리 한마음에서 나와요

면 자유스럽게 걸어가는 할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깐요.

그러니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그 천차만별의 이름들, 천차만별의 모습들 천차만별의 마음으로 서 생활하고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 그 마음 하나에서 천차만별의 가지가지가 다 풀려서 나온다는 것만 아신다면 어디에 갖다 세워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얘기 잘 알아듣지 못해

문 스승님! 길을 가던 중에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니 알아듣지도 못할 뻔한 한 사기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세상에 와 있긴 한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혜가 모자란 탓으로 내려가는 방편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답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

닌 그 가운데서 그대로 여여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저것 따지게 되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양면을 다 놓으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고정점이 없이 공에서 돌아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고 깨고 자고 깨는 것, 자는 걸 버릴 수도 없고 깨는 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꺼번에 그냥 다 맡겨놓으세요. 그렇게 부지런히 안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게 되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겁니다.

불행 잇따르는 집안 내력

문 나태해지고 분별심만 늘어가는 제 자신을 우선 참회하고 스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집안의 내력이 너무 딱합니다.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후배를 낳고 몇 번의 결혼실패를 경험하셨고 후배의 큰 이모부는 정신이상으로 가출해서 실종되었으며, 막내 이모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이모와 막내 외삼촌도 이혼과

파산의 와중에 계시는 등 듣기에도 너무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하는 법을 후배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후배는 기독교가 모태신앙이어서 절대자 하나님과 스스로가 돌이아 나다라는 도리를 수긍은 하면서도 웬지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가련한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성이 참 곱고 정의감이 강한 후배인데, 옆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니 제 수행의 부족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위와 같은 불행한 가정사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지, 목말라 하는 후배에게 물 한 그릇 떠 줄 수 있는 도리는 무엇인지 깨침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답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을 일러 불(佛)이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연구하고 지혜가 넓어지고 창조해나가는 것을 교(敎)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불교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든 주인공을 찾든 각자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있고 자기로 인해 세상이 보여진 걸 안다면, 모두가 하나로 들어가는 진리임을 알 것입니다.

그 후배한테 주님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니 네 마음 안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각자' 소리를 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막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 형상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안으로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어머니도 배신하지 않고 자기 근본도 배신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바깥으로 떠돌리지 말고 안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자연히 자신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 지극하게 마음 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름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니깐요.

통 밖으로 나오는 방법

문 지극한 마음으로 큰스님께 삼배를 드립니다.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린다는데 통 밖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방편이 있으면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뉘나뉘나 해도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모양

입니다. 통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굴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렵기도 하겠지요. 어른이 되어서야 아이 적의 행동이나 생각이 참이 없었음을 알게 되듯이,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야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인공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반드시 통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어딘가가 부족하고 감해있는 것 같아도 관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뿐이지 언젠가는 통 밖으로 벗어나서 통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통을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 훌쩍 벗어난 뒤에 보면 그 동안 애지중지 지켜오던 내 생각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저까짓 걸 가지고 내가 그토록 집착을 하여 남과 다투고, 스스로 업을 짓고 고를 지었구나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 밖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과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차원을 계속 높여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언제나 내가 말하듯이 양면을 다 놓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좋음과 나쁨 등 이것 저것 사랑분별하는 마음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내내 놓아서 그것들이 흔적도 없이 되었을 때 우리는 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계가 물질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안과 밖이 그 물질에 있게 한 원인(心)이 살아 있음을 육안이 아닌 심안(心眼)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통 밖으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죽여야만 진정한 자기가 사는 도리가 이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고 자기를 죽이지 않자, 온갖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중도행입니다. 그런 중도행을 해나가노라면 어느 사이엔가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는 아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태아가 정상발육 안돼요

문 주인공을 알게 해주신 큰스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경계가 딱 쳐올 때마다 주인공을 느끼지 못했던 어디에 의지하고 살았을까 싶은 정도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음 달에 출산예정인 임신부입니다. 유산한 한 번 했던 관계로 이 아이는 부처님이 주신 아이니 정성껏 키우겠다는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에

☞ 24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 국내지원 ●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 전화 : 사무처 (0343)470-3100
 팩 스 (0343)470-3116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0462 Fax : 0446)883-7171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13블럭 9-2노트 Tel : 052-284-0884 Fax :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25-342-6630/6639 Fax : 052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91-746-8163, 744-1321 Fax : 0591)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삼도동 18-99 Tel : 0562-275-3163 Fax : 0562)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33 Tel : 0431-259-5599 Fax : 0431)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91-651-3003 Fax : 0391)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Fax : 0557)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31-284-1771 Fax : 0631)284-1770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Fax결속)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za 5250, El Corte, Yerbá Buena, CP4107, Tucuman,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43 sol pattanavet Sukhummvit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